朝鮮日報
朝刊

社說 朝鮮農地令 完全한小作令出現을要望

一

오래동안 말성되어오던 朝鮮農地令의 內容이 果然어떠한것인가하야 一般은顧히 注目하여오던바 六日閣議에서 이것이 決定發表되엿슴으로 本報는 即日 號外로써 그全文을 報道한배잇섯거니와 이에 그內容을 討檢하건대 一見小作人保護에 重點한듯하면서도 좀더 愼重히 考察하면 이것은 一種의臨機에 不過한事實을 發見하게될때에 吾人은 小作人을爲하야서나 本令制定을 爲하야 努力하여온 總督府當局을 爲하야서나 遺憾으로녀이지안흘수업다。

二

小作令은 아즉 日本內地에도 그施行을보지못한 今日에 잇서서 朝鮮에서먼저 此의實施를보게된 것은 朝鮮農村乃至朝鮮小作制度上의 特殊的關係도 잇지마는 如何튼 朝鮮에서먼저 小作令實施를 보게되다는 것은 劃時期的事實이라고 할수잇는것이다。 딸아서 吾人은 當局의 如斯한 進步的 政策에對하야 만흔 期待를 갓고 왓스나 于先實質上 文字그대로의「小作令」을 구라처「農地令」이라고 그名稱을 變改하는 政府의心理에 疑心을갓지안을수업섯고 이제 그全文內容을 一讀할때에 그의有名無實的 臨機임에 또한番 失望치안흘수 업게되엿다。

三

勿論 小作契約의 賃貸借에 잇서서「登記가업다하드래도 小作地에必要하다고 認定하는時는 該小作地에對하야 物權을 取得함에잇서서 그效力을發生」(第十二條)한다는規定이라든가「賃貸人은 賃借人의 承認이잇슬時라할지라도 小作地의轉貸를 不得」(第十三條)한다는 規定이라든가「不可抗力에 因하야 收穫高가 現著히 減少하엿슬時는 賃借人은 賃貸人에게對하야 小作料의輕減 又는 免除를 申請할수잇슴」(第十六條)한規定이라든가 또는「當事者가 小作地의 賃貸借期間 終了前 三個月乃至 一年前에 相對方에게對하야 更新時日의通知 又는 條件을 更치안코는 賃貸借를 更新치안는다는旨의 通知를 하지안는 時는 前賃貸借는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賃貸借한것으로 看做」(第十八條)한다는 規定가튼것을 一見할때에 小作人은 本令實施에 딸아 만흔保護와利益을 엇케되는듯이 思惟된다。

四

그러나 첫재로 小作權의賃貸借期間을 三年(第七條)이라는 短期間으로 制定하엿다는 것이 農地令의 致命傷이다。 三年以上으로 드른 吾人은이미 本欄에서 屢次 此의 不當을 論難한때 잇섯거니와 如此한 短期間은 小作人의不安을 적게하야 社會의公安을 維持하는 點으로、國土를 肥沃케하야 生産을 增進하는點으로보와 二重의 損失을보게 되는 것이다。 從來 農地令이 施行되기前에는 비록一定한 小作期間은 업섯다하드래도 四五年은 普通이엿고 또는 永小作에가까운 世襲的 小作關係이잇슨事實은 世人이周知하는바이다。 둘째로는 農地令全文을通하야 小作料 決定方法의 規定이發見되지안는 點이다。 小作料의決定은 勿論 一律的으로 規定하기는 困難하다 할지라도 大體의 標準이잇서 監督官廳이 此를 監視하여야 할것이다。 함에도 不拘하고 此에關한 一言半辭도업다는것은 地主側에 不利한態度를 주는同時에 小作人側에 그만한 犧牲的讓步를 强要하는것이다。

五

셋째로는 第十七條에規定한 바와가튼 總督의 決定權이다 總督이 小作料其他를 決定하는것이 正當치못하다는것이아니라 總督의決定은 其實 下級官廳의 報告에依하게되는터인다。 대 地方官廳의報告는 여러가지 關係로 地主側에 有利히될 事情이마흠으로 이가튼決定을 하야는 半數의小作人을 參加식힌「小作委員會」가튼 機關이잇서야할것이다。

이와가티 發表된 朝鮮農地令은 缺點투성이의 不具的法令이어니와 이미 實施되기로 作定된法令임으로 吾人은 當局에 對하야 本令實施에잇서서 以上의 모든 缺陷을 參考하야 可及的 그弊端을 적게하도록 努力하기를바라는同時에 不遠한將來에 完全한 朝鮮小作令制定에 留意하기를 바란다。

專任文相의補充 當分斷念할形勢

政友會의態度만硬化식히고 政府의第一次工作失敗

【聯合東京電話】 齋藤首相은 內閣補强工作의하나로 專任文相을置하기로 決意하고 松本商相을文相으로 轉任식히고 後任商相을 政友會로부터 物色하려하엿스나 松本商相이 受諾하지안음으로 다시政友會로부터 直接文相을求하기爲하야 堀切善兵衛氏에게 交涉하엿든바 同氏도또한 政友會內의强硬한意向과 高橋藏相의政策을完成식힐意味로受諾하지안코 드되어專任文相問題는 停頓되게되엿슴으로 首相은不得已急速히專任文相을補充하기를 斷念하고 四圍의情勢를본後에 專任文相設置의 第二段工作에着手할모양이다 이러한境遇 政府는 다시政友會에交涉할는지 또는 政友系勅選議員中에서 起用할는지 疑問이나 如何튼 고觀測된다

首相의 文相補充第一次工作은 失敗되여 政友會를硬化식히게되엿슴으로 第二次補充工作에 잇서서는 首相、藏相의談話로보아 政友會또는政友系에 交涉하게되리라고觀測되는바 此際第一次交涉의失敗는 반드시惡影響을齎來할것으로 專任文相補充은 當分留保할수밧게업스리라

衆議院에議席을가진 政友會員中에는 政府가希望하는適當한人物은人選難이될것이다 內閣威信의問題를別하면 그것도容易히成功될것이나 現內閣은 今般偏差및閥官의補充、專任文相의補充等第一次工作에失敗하고 地方長官會議開會期도未定되여잇고 또司法省○○事件의 發展等現內閣에 對한民心은 全然히反되여잇슴으로 今回의 第一次工作失敗後다시다른方法에 依하야文相補充에着手할모양인데 此에依하야人心을새롭게하고 留任하기는 困難함으로 政局前途는 決코樂觀을不許하는狀態를 呈하엿다고觀察할수잇다

非常時突破에對해 三長老意見一致

後任文相을補充한後

【聯合東京電話】 齋藤首相은 文相補充問題와 政策的內閣更生에關하야 最後的決定을必要로함으로 六日의閣議前에 午前九時五十分부터 約三十分에亘하야 高橋藏相及山本內相의 兩長老와 會見하고 于先首相으로부터 後任文相問題及政策更新에對하야 所信을披瀝하고 隔意업는意見을交換한結果 時局은實로 重大하야 難局을打開함에는 政府는重大한決意를必要로하며 特히最近人心이動搖하야 암만조케보드래도 現內閣을離脫하여가는것은 다툴수업는事實이다 故로此際에政府는 民心을一新하는同時에 政策的更新을圖함은 勿論 齋藤內閣의使命인 一九三五、六年의危險線에備하기爲하야 整頓함은勿論 百年의大計를세워 國民의向할바를알게하는同時에 官紀의振肅도必要하며 專任文相과如한이도 일을하는사람보다도 人格本位로詮考하야기로 三長老의意見이一致되엿고 齋藤內閣의人事行政刷新을圖하야 最近의某事件에關하야 情報를交換하고 文相補充에伴한 閣員補充에關한 政友會에의交涉方針에對하야 協議決定하엿다 그結果 齋藤首相은 專任文相補充及政策의 具體化에邁進하기로될것이다

文相後任은 人格者中에서 山本內相의意向

【聯合東京電話】 後任文相에關하야 山本內相은左와如한意向을가지고잇다 政府가처음 松本商相을 專任文相으로 轉化식히고 後任에 望月、島田氏等을 起用하려하엿스나 松本商相이 受諾하지안음으로 政友會에서 直接文相을補充할目的으로 堀切政務次官에 交涉하엿든바 拒絶되엿는데 特히鳩山氏의 後任임으로 政友會에서 起用할것은 當然한것으로 望月氏에게交涉하야、同氏가應諾치안으면 代議士中人格者에게 交涉하고 그래도應諾치안을境遇에는 政友會系貴族院議員中에서 起用하는것이可할것이다

鰹의僞證事實 漸次로明瞭

僞證罪로起訴될터

【電通東京電話】 岡本代議士의 小山法相 告發事件에關하야 證人으로 强制處分에依하야 收容된 赤坂藝妓의 女將鰹(安藤照)(三五)에關한 事件은그後 取調中이든바 七日辭任의女下人某를嚴重取調에서 結果僞證한事實이 漸次明瞭하게되여 來週初에 僞證罪로起訴하기로되엿는바 이것으로事件은 一段進展되게되엿다

第一次工作失敗로 內閣의前途多難

園公의留任勸告는常例言辭 貴院各派有力側의意見

【聯合東京電話】 堀切善兵衛氏를 文相으로起用하려든 政府의 第一次補强工作은 失敗로終了되엿는데 右에對하야 貴族院各派有力者側의意向을 綜合하면 左와如하다

齋藤首相이 依然文相補充工作을 進捗하지안코 園公訪問後로 延期한것은 內閣進退에關하야 考慮하기때문인데 園公의 常例的言辭로 留任을決意하고 文相補充의第一次工作에 着手하야 堀切善兵衛氏를起用하려하엿스나 黨內事情그他로因하야 就任을拒絶하엿슴으로

英大西洋艦隊大演習

英國은 只今西印度諸島로부터 地中海入口의 英國軍港지부랄타에 至하는 大演習을行하야 世界의注目을 끌고잇는바 寫眞上은 西印度의 바세러灣에서 演習開始를 기다리고잇는 大西洋艦隊의 巨艦로드늬號넬슨號와 加奈陀艦隊의巡洋艦等의 雲集光景 下는 同地에서의 水兵閱兵式

比島獨立法起草者

獨立猶豫期間短縮案을立案 十二年은너머長期라고

【聯合華盛頓六日發】 比島獨立에關한 타이딩스法案은 이미米國上下兩院을 通過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의 調印을完了하엿는데 右起草者의 一人인 타이딩스氏는 獨立許容期間이 十年間乃至十二年間은 넘무長期라고하야 다시此를二、三年以內로短縮할案을 目下立案中인대 이點에 對하야 六日左와如히聲明하엿다

余는比島에對하야 二、三年以內로 獨立을許容하는案을 目下考慮中인대 詳細는二、三週間以內에 發表할 豫定이다 그리고타이딩스氏는 六月까지에 比島를訪問할意向을가지고잇다 그리고此際 日本中國等亞細亞諸國도 巡視할計劃이다

日蘭會議 五月又는六月에 바타비아서開催

【電通암스터담七日發】 日蘭兩國政府間의 通商會議는 五月又는六月 바타비아에서 開催하기로되엿는데 和蘭은 蘭領東印度에로의 日本品의 輸出增加代償으로 日本에자바糖의 輸入增加를要求하야 所謂바타制(物物交換)을主張하리라고觀測되다

佛軍縮回答 英政府에手交

【電通巴里六日發】 去三月二十八日附 英國政府의軍縮通牒에對한 佛國政府의 回答은 今日閣議의承認을어더 直時駐英佛大使에게 此를送하야 英國政府에手交하엿다

政軍의實權剝奪 總體로中央統轄

西南文治派는룸펜化할形勢 蔣介石의西南政策全貌

【南京發電】 蔣介石氏의 西南에對한 統一政策은 周知하는바와가치 軍事政治兩方面에서 西南을完全히 中央直轄下에 進行되고잇는것인데 同政策은 豫想外에 成功하야 胡漢民氏一人의 反對로 停頓되어잇는 西南政務委員會、西南執行部等의撤廢도 中央側에서는 곳實現될것으로豫想하고 잇서 右兩機關撤廢後 設立될 西南軍事分會의組織原則을 決定하고 此를陳濟棠 李宗仁兩氏에게 내밀려하고잇는데 蔣介石氏의 對西南政策의全貌는 大槪左와如하다

(一) 西南執行部와 政務委員會를 撤廢하고 從來半獨立形態로잇든 西南政治形態를 解消식히고 同時에 西南文治派와 實力派와의關係分離를 企圖함

(二) 軍權을 中央의손에收키爲하야 西南軍事分會를設하고 北平軍事分會와 同樣으로 軍事委員長 蔣介石氏의 指揮를 맛는組織으로 改正함

(三) 陳濟棠의有한 廣東海空軍은 中央의손에 接收하고 此를 處理하는機關으로 西南海軍處、西南空軍處의兩處를設함

(四) 西南海軍處長에는 張惠長을 空軍處長에는 陳策을命함

右에依하면 從來西南派의有한 軍事政治의實權은 다中央에 集中되어 陳濟棠、李宗仁等은 엇더케든지 軍事分會에남어잇다하드라도 胡漢民、鄒魯、陳佛成、鄧澤如等의 政治的實權은 皆無되고 中央으로復歸하지안으면 룸펜政客으로 化할수밧게업다 그리고西南軍事分會의組織原則은 中國消息에依하면 正副委員長各一人을 任命하야 正委員長에 陳濟棠 副委員長에 李宗仁을 命하고 委員은 七名乃至九名으로하야 東南西北各路剿匪總司令을 此에 任命하기로되엿다고한다

特別委員會前에 聯盟加入은猶豫?

日滿兩國의誤解를考慮한듯 蘇聯의聯盟加盟問題

【電通쥬네브七日發】 國際聯盟에加入할 意圖를表明한 蘇聯의 聯盟加入時機에關하야 一部에서는 五月十四日의 右特別委員會以前에 實現하야 加盟第一回의活躍을 行하리라는 觀測이잇는데 確聞한바에依하면 聯盟當局이 最近莫斯科政府에對하야 加盟할意思의 有無에關하야 非公式으로探索한바 莫斯科에서는 否定的回答이 잇섯슴으로 聯盟當局方面에서는 蘇聯은 最初의意見에反하야 五月十四日特別委員會前에 加盟하기는 中止하기로 決定된것이라고觀測하고잇다 그리고右蘇聯이 最初의意見에反한理由는 只今加盟하는것은 蘇聯이滿洲國及日本에對하야 積極的態度를取하는것이라고 誤解밧기를 避하기爲함이라고觀測된다

獨逸新敎牧師 舊敎改宗請願

【電通伯林六日發】 獨逸의新敎陣營內의 紛爭은 最近急激히 激化되여 六百名의新敎牧師는 本日一齊히 羅馬法王에 對하야 舊敎로改宗하기를 希望한다는 請願書를 提出하엿는대 나치스政府가 宗敎運動을 壓迫하고 新敎敎派를 나치스化하려고 試驗하는대 對하야 舊敎徒의一部가 法王을推立하고 此에對抗하려는 機運이濃厚한 此際 이와갓치 多數의新敎牧師의 轉向은 相當한影響을 及하리라하야 各方面에서 注目되여잇다

補助金廢止等의 海運會議를要請 四國公使團、英外務省에

【聯合倫敦五日發】 倫敦駐箚 丁抹、和蘭、諾威、瑞典 四個國公使는 五日英國外務省에對하야

一、國際船舶界의 不安定狀態를 改善할意圖에 對하야 英國政府는 考慮할意思가잇는가

二、政府의補助金廢止又는制限 及船舶噸數를 世界의 實際的要求에 合致식히도록 統制하는데 對하야 速히英國이 海運會議를 召集하기를 希望한다는旨를 通達하엿다 右要請에對하야 英國政府는 目下考慮中이다

人事、雜談으로 國策에는不觸 園公訪問後陸相談

【聯合靜岡電話】 林陸相은 西園寺公을 訪問後 午前十時二十五分 坐漁莊을 辭하고 大東館에 入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西園寺公을 訪問한것은 就任以來 議會等일로 人事치못한故로 人事드리기 때문이엿다 처음으로 拜面하엿슴으로 政策等의말은하지못하고 여러가지 雜談하는데 不過하엿다 國策等에 論及할야면 ... 老公의意見을 求할것은 할수업는일이다 老公은 國際間의狀勢等이 小國은 엇지되는지 蘇聯은 엇지되는지 이러한程度의下問이엿고 滿洲國의發展에는 滿足하시고잇섯다 老公은 確實하다 國事에 關하야 念慮하심은 여러가지 點으로 硏究하야 成案을 어드면 首相에 獻策할것은 今後에 잇슬줄안다 이問題에 對하야는 荒木이 엇지 생각하는지 드러보아야 할것입으로 荒木과는 今後 會談하여야하겟다 荒木과 余가 國策問題에 對하야 意見이 一致한等의일은 업다 余는 想像이過한듯하다 딸아서 總理에 國策問題에 對하야 近近獻策치는 안켓다 政局의 推移는 알수업스나 只今갓해서는 큰變化는 업슬듯이 思惟된다

入閣에應하라 床次氏鈴木氏에說伏

【聯合東京電話】 政友會의 川村、長島兩顧問은 五日午前十時 麴町私邸에 鈴木政友會總裁를 訪問하고 現政府와 今後如何한關係로 나갈까하는 問題에 對하야 意見을 開陳하고 同十一時에 辭去하엿는때 鈴木總裁는 此와 同時에 麴町의 私邸에 床次顧問을 招致하고 意見을 質問한배잇섯다 此에 對하야 床次氏는 「齋藤內閣과 政友會從來의 關係로 考慮하야 今日閣員을 入閣식힘은 理論的으로는 贊意를 表하기 어려우나 이미 入閣할 人物氏名等이 世間에 流布되여잇슴으로 萬若要求에 應치안는 境遇에는 世間에서는 總裁意中의 人物이 업슴으로 拒絶하엿다고보와 一般의 誤解를 把致하야 將來할것임으로 政府의要求를 拒絶함은 極히 愼重한態度로써 할것이다」라고 婉曲히 政府의 交涉에 應할뜻을 進言하고 床次顧問은 同十二時 辭去하엿다

軍縮幹部會

四月十日、쥬네브에서開會 開催까지의經過

聯盟軍縮會議幹部會는 드듸여 來四月十日 쥬네브에서 再開하기로 決定하엿는바 一九三三年十月以降 軍縮問題에 關한 情勢를 示하면 다음과갓다

◇ 軍縮一般委員會는 一九三三年十月二十六日 最後의會議에서 同年六月에 決定한대로 將來軍縮條約의 基礎를 만들기를 決定한 英國案의 第二讀會를 開할 時期까지 早로 其以前에 關係各國의 同意를 듯기爲하야 充分히 工作을要한다는 旨를 聲明하엿는데 이聲明에 依하야 幹部會는 該條約案을 改訂하야 現在各國의 要求에 副하는 程度의 것으로하기爲하야 必要한 手段을 取할 權限이 賦與되엿고 同時에 在來意見相違를 可及的 除去하기爲하야 交涉을 行하기로되엿다

◇ 一般委員會는 昨年十二月初旬에 再開할 豫定이든바 當時政治的意見相違로 再開하드라도 何等進捗될 可能性이 보이지안는 狀況을 察知하고 再次延期하게되엿는데 幹部會는 此際各國間의 平行的、補助的外交交涉에 依하야 局面을 打開함이 有利하리라고 決하고 會議役員에 對하야 一般會議再開期日 決定을 命하엿다

이決定에 基하야 幹部會는 二個의 特別委員會及各問題에 關한 報告者를 任命하야 草案各條項의 修正을 行케하엿는대 報告者는 數日後에 이르러 若干政治問題가 解決되지못하면 草案修正이 困難하다고 報告하엿다

◇ 議長은 昨年十一月十九日부터 二十一日에 亘하야 英、米、佛、伊四個國代表와 形勢를 審議하고 西個國代表가 提出한 提案은 十一月二十二日 幹部會에서 承認되엿다

議長핸더슨、副議長폴리티스、報告者베네슈、事務總長아브놀西氏는 一月十九日及二十日 쥬네브에 會合하야 當時平行的補助的交涉이 進行되고 잇는 狀況에 鑑하야 一般委員會의 速開에 依하야 이進行을 阻害하는것이 不利하다는것을 察知하고 다시 二月十三日 다시 開會하기로 決하고、其期日까지 關係各國政府로부터 交涉經過의 報告를 要求하기로하고 議長으로부터 一月二十七日附로써 英佛伊三國政府에 右情報提出을 要求하엿다

◇ 此에應하야 駐英伊太利大使 그란디氏는 二月七日附로써 軍縮問題에 關한 伊太利政府의 覺書를 提出하고 英國外相 써-존싸이먼氏는 一月三十一日 下院에 提出한 新軍縮覺書及 同外相 二月九日 議長에게 送附하는 同時에 書面으로 國聯當局이든氏를 直接軍縮關係에 派遣하야 英國覺書에 對한 此等諸國의 態度를 明確히하야 英國政府가 將來 取할 手段에 參考資料로 하겟다는 旨를 通告하엿다

◇ 다음에 佛國外相 빨루-氏는 二月十七日附로 昨年十二月十八日 獨逸政府로부터 佛國大使에게 發한 覺書 一月一日附 佛國政府의 回答及 一月十九日附 獨逸政府의 回答一通을 議長에게 提出하엿다 二月十三日 倫敦에 會合한 軍縮會議役員은 此等情報를 審査하고 直時 幹部會를 開催하는것이 不利하다는것과 이든氏의 使命에 鑑하야 意見相違를 可及的 除滅하기爲하야 다시 相當한 期間을두어 四月十日 幹部會를 開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三月九日 議長핸더슨氏가 發表한 『軍縮會議再開期及復文書에 關한 文書에는 二月十四日附 佛國政府로부터 獨逸政府에 發한 回答及 米國國務長官으로부터 駐米英國大使에게 二月十九日 交付한 覺書도 包含되여잇다

三月中旬의外地貿易額 拓務省發表

【電通東京電話】 拓務省發表 三月中旬의外地(關東州를除함)貿易額은 左와如함

總移出 六百八萬六千九百八十三圓
總移入 一千七萬三百十九圓
合計 一千六百十五萬七千三百二圓
差減 三百九十八萬三千三百三十六圓

의入超를내엿다 此를前年同期에 比較하면 總移出에잇서 百五十二萬二千七百九圓 總移入에잇서 百六十五萬二千二百八十四圓 總移出入合計 三百十七萬四千九百九十三圓 入超額도 十二萬九千五百七十五圓이 增加되엿다 그리고 本年一月以降 累計額에잇서서는 前年同月에 比하야 二百八十三萬五千七百四十一圓이 減少되엿다

辭令

【電通東京電話】
朝鮮公立中學校敎諭 宇野鬼芳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七等)

人事·集會

▲今井田政務總監 九日夜東京發로歸任
▲林財務局長 滯東京中이던바 六日午前九時東京驛發特急으로 떠나途中에 大阪에 들렷다가 十日夜에 京城着으로 歸任하게되엿다

寺洞 電光三六一 朝鮮劇場
四月七日낫부터 特別普通料金(團體歡迎)
非常時巨彈篇突然封切!
國防映畫 海의生命線 全十卷
朝鮮總督府社會課推薦
大阪每日新聞社提供、海軍省後援、文部省推薦、橫濱시네마製作全發聲
斷然코死守하라! 海의生命線! 南洋群島의全貌를 興味잇게描破하고、愛國熱情의뛰는國民에게 鳥瞰과感激을주는 未曾有의國防映畫!
外나、社超特作大爆笑劇 珍優젠스、가그니氏主演 어리개이、가그니 全九卷
次週=さくら音頭 全當
特別豫告=會議의踴舞、黑衣의處女、狂爾몬테카르로、힐드러의靑年、사랑의日曜日

麻浦桃花洞 電話一一二二 桃花劇場
四月六日부터特別大公演 大衆的料金 階上二十錢均一 階下十錢均一
◇메트로폴드원社全發聲日本版 大活劇 나의武勇傳 全九卷
監督…하리보라-드氏 主演…쟉키-쿠-바君
弱者란소리만듯고맛다가 弱氣를征服식히고 猛烈히奮鬪한大活劇의名篇이다
◇新興映畫社全發聲日本語 代活劇 昭和新撰組 全十卷
監督…田坂具隆氏 主演…小杉勇氏 瀧花久子孃
時代劇의新撰組가아니라 現代的으로된現代活劇이다
次週=四月九日부터 劇團…朝鮮硏劇舍大公演 五十餘名一團網羅한 硏劇舍
豫告=十五日낫부터 로빈손쿠루소10 豫告=劇團 主幹金昌俊 (近日來演) 제니의一生10 강크의딸 선라이스 日本現代劇數種

天活堂醫院 院長
內科 小兒科 皮膚科 花柳科 病入院完備
京城府鍾路四丁目一二 電話光化門二二八三番

債權申出催告
中央興業株式會社는 本年三月十五日株主總會의決議로 解散하고 淸算中이온바 債權者諸位는 昭和九年六月二十日內로 各其請求를 申出하시옵 若此期間內에 申出치아니하실時는 其債權은 淸算에서 除斥되겟사오니 照亮하시옴 商法第二百三十四條及民法第七十九條에 依하야 公告함
昭和九年三月廿一日
京城府積善洞一〇七番地 中央興業株式會社
淸算人(辯護士) 李在元

當選謝禮
仁川府會議員 金泰榮
仁川府會議員 金容奎
仁川府會議員 鄭旭鉉
仁川府會議員 金泰性
仁川府會議員 李舜桓

本所는左에 普信警鐘을 大衆本位로 選鑄造하와 實費提供하오니 多少不拘하시고 注文하시옵
◎(但物價는代金引換으로하고 運賃은注文者負擔)
堅如金剛
一、甲鐘口直徑一尺四寸(百五十戶以上部落用) 代金九圓也
一、乙鐘口直徑一尺二寸(百戶以上部落用) 代金七圓也
一、丙鐘口直徑一尺(五十戶以上部落用) 代金五圓也
聲如雷震
◎(但十枚以上注文에는 物價五分以上의粗品을進呈함)
京畿道高陽郡龍江面孔德里二三番地ノ三
專門警鐘 普信工業所 白
(取次)長電龍山一四二四番

型錄請求次第 無料送呈
京城府長沙洞八〇 東洋染織株式會社
電話光三二六八 振替京城一六五六三

ヤマトミシン
一般家庭用及女學生用에게 나는듯이팔닙니다

一台六圓五十錢 送料一圓
百貨賣易商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電話中三九九六 振替名古屋一〇七七番
(目錄進呈)

小作立法의眼目 物權의規定模糊

小作期間짤분것도 큰遺憾

農地令內容의批判 (一)

조선농촌에는 가는곳마다 살수업다는 농민의 아우성소리만 들리고잇서 하로밧비 마음노코 **농사를** 짓토록하여야겟다는것이오늘의 조선농촌문제가 긴절한문제로론의되는바이다 그리하야 총독부당국의 농촌대책도 여러가지잇스나 농촌대중의생활에큰 관계가잇는소작령즉 소작인과지주의관계를법률적으로규정할필요가잇다하야 발서부터 소작립법에대한준비를거듭하고잇든바이것이 사십삼년수속의길을밟게 되것은 작년가을이엇다 그후에 문제로 말미암아 각방면에말성도만엇고 또한동안은 그것이파연립법화할는지도매우맴려되어 의문보호외로 천하에 알리게되엿든 참말말성이만튼바 난산에난산을 거듭하여겨우발표된것이 작륙일 농지령(農地令)이라는것이다 이 법령은 물론 조선에잇서서는 **근래에** 처음보는사회립법(社會立法)으로서 이법령의내용여하에 따라서는장차이와가튼성질을가진법령에도 영향이 미츨것으로 살수업다는농민대중은물론일반사회에매우주목되여잇는바결국 뚝겅을열고보니그리신통한것도 아닌것은 이 농민대중을위하야 매우유감이라하겟다

◇

이제 이법령중에서 농민대중에게 가장 깁고 큰 관계가잇고따라서 이 법령의 골자라고 볼수잇는 몃항목에 대하야간단한해설과비판을 하여보자 먼저이 법령의 핵심(核心)이라고 할 소작권의 법률적 성질과 소작긔간 문제를 들어보면 소작권을 민법상의 물권(物權)으로하야 이것은 재판소에등록하지아니하야도 지주와 소작인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라도 건드리지못하게 물권화식히어야만 사실상에잇서 소작임대권(賃貸權)이라는것이 **법률적** 으로보호를밧게될것인데이것이 총독부최초의초안에서변경되어 전연이에대한 규정이업는것은 이법령의중대한 결함에하나이다

◇

그리고 소작계약긔간으로 말하면 농사짓는데 그성질상필요하다는것은 물론약자인 소작인을좀더 보호하는의미에서 영소작(永小作)과가티는못하드라도적어도 오변이상이나 십변이상을 하는것이 단연필요한데 불구하고 농지령의 제칠조로부터 제구조까지에 그긔간을삼변으로하고 조선총독이 지정한영년작물(永年作物)즉 뽕나무나 과수가튼것에 한하야는 칠변으로제정되엇다 원래총독부에서 열엇든 소작령제정에 관한민간 **협의회** 에서도소작과 지주간에대한것이 가장 말성거리로되어 모다오변이상을 주장하고 또영소작적 긔간으로 하여야한다는주장도잇섯고 또 법제국으로원안이 넘어갈때에도 오변으로 규정되엇든것이 일부 무리해한 지주의 암중책동과 일본내지당국자의 반대로 이것이삼변으로 줄어들고말엇다

◇

그러나 총독부당국에서는 이와가튼 짧은 소작긔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지주는 소작인에게 계약을어긴다든가 또는 다른배신적 행위가 업는이상은 소작권을 계약만기하고서 그대로계속하여 갈수잇다는 규정을제십구조에 제정하여잇다 그러나여하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약자의** 처지에잇는소작인은 지주의 운동여하에 해석여하에따라서는 사실상신통한 효과를 엇지못할것갓다 소작인의 배신행위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소위배신행위라고 지주가 떼들때에 이것을 소작위원회라든가 또는재판소 가튼데서 이것을 재정하야준다면 몰으되 지주는 마음대로 소위배신행위라는언덕을 잡아가지고 긔간이 끗난후에 다시계약을 하자는소작인의요구를 거절할경우를 우리는념려히 짐작할수가잇다 아즉이법령의 시행세측이 발표되지안엇으므로 세측에 총독의명령으로다시 **어떠한** 것이 나올지는 몰으나 소작긔간이 삼변으로 된것을보아 이법령을 맨들은당국의 조흔의도가 충분히 나타나지못한것이 유감이다 (계속=K生)

都市京城의癌腫인 土幕民의移住計劃

水平線下에잇는 二千餘戶爲해

第二候補地를物色中

차층시설로나 건축로나 각양각색으로 현대화하고 미화(美化)하야가는 도시경성의 풍치와미관상큰오점을 던진다는토막(土幕)을업시하기위하야 지난소화칠년부터 경성부에서 오개년계획으로 총독부와 경긔도의보조를엇고 거긔다가 경성부가또한 적지안흔 비용을지출하야 매년 이천오백원식으로 화광교원(和光敎園)을 석기어시외아현리(阿峴里)산칠번지의 토지 이만평(坪)을사서이주시키는사업은 작년사월일일부터 지난삼월말일까지 작년 소화팔년도중에팔백이십륙호삼천칠백륙십인을 이주식엿다한다 이들은 매호에열두평식을 무료로 대부하야집을짓고살도록하는것이다 현재 수용된사람들을 위하야 이미시설하야 노는것으로는 일용품 공동구입(日用品共同購入) 긔구와 사변제 초등학교를 만들어건평(建坪)륙십평의 교사를 짓고삼백명아동을수용 교육중인데 작년십이월에 경긔도에서 허가까지 어덧스며 현재 수용된아동 이외에도약사백명의 지원자가 잇스되이를수용치 못하므로다시제이 교실을건축코자방금립안중이라하다 압흐로는무료산원(無料産院)과 의료긔관을 완비식일터이라 하며 시내와시외 린접지에거주하는 토막민이천오백호를 전부수용구제하야 첫재는 도시의미관을 손치안케하고 둘재인도상으로생활건설의상이병(傷痍兵)을구제키식이고자제이차로후보지(候補地)를 선택하야 여긔서초과되는토막민을 수용할 부락을 다시만들터이라한다 다시 그외에는 현재잇는수산장(授產場)을 확충시키어 부인과소아에게도 각각적당한 생산적 기술을 너어주어자활(自活)의 실력이붓도록하려라한다

元龜年急死事件의 兩巡査有罪決定

瀆職罪로豫審終結決定되여

咸興法院公判廻付

【咸興】 지난이월십이일오전 여덜시경모종격문사건으로정평(定平)경찰서에 검거되여 그날 오후두시경까지오륙시간만에돌연시체로화하여나오게된원귀년(元龜年)변사사건으로함흥지방법원검사국에인치되여엄중한취조를밧고 예심에넘어갓든 원정평경찰서순사대구보용장(大久保勇藏)송영승일(松永勝一)의 두명은지난십일월말일에예심이종결되여독직(瀆職)죄로각각공판에회부되엿다한다

天道敎靑年黨 第八次大會 新任委員

시내경운동에본부를둔천도교청년당(天道敎靑年黨)에서는지난 사일중교 긔념관에서 제팔차전당대회를열고 지방대의원 일백사십여명 출석으로의장 조긔간(趙基栞)씨사회하에경과보고가잇슨후당헌수정(黨憲修正) 예산안통과 당세확장계획안(黨勢擴張計劃案)에대한토의와중앙집행위원 선거가잇스며 륙일에제일차중앙 집행위원회를 열고각부서를 결정하엿는데 신임된위원은아래와갓다더라

黨頭 趙基栞(訓鍊部長兼任) 總務部長 鄭應琫(總務部長宣傳部長兼任) 財務部長朱義洛 組織部長金履國 常識員金秉濬 全鎭贊 林文虎

◇中央執行委員 金秉濬 趙基栞 林文虎 鄭應琫 金履國 孔濯 全鎭贊 白重彬 金秉濟 白世明 李錫保·夜星淑 金道賢 金廷柱 金達鉉 金泳煥 桂潤集 金玉斌 金公善 車相瓚 李根燮 劉漢日 金炳淳

◇中央檢察委員長 崔丹鳳 委員 趙龍祖 趙錫晉 薛雲龍 金商說 趙八贊 韓元彬

部門首席委員 幼少年部 李園 靑年部 李錫保 學生部 金道賢 女性部金鎭贊 農民部林文虎 勞動部劉漢日 商民部金玉斌

◇―京城運動場의 奇觀 새로된 水泳場 (기사참조)……

人氣沸騰한 渡歐三人演奏

명곡을가추어연주한더 十日夜公會堂에서

음악의 본고향으로 음악수업을 가는 우리악계의명인리애내(李愛內)양의피아노 리인선(李寅善)씨의테너 안병소(安柄玿)씨의바요린,이세분고별 음악회가 오는십일밤 공회당에서 본보화 예부후원으로 열린다는 소식이 전파되자 적막한우리악계는 이날의 성대한모임에대한 평판이 아주고조되어 각방면으로 인기는비상하다 세분은모다 훌륭한 천품과 실력을가진분들로 만번류한은 압흐로우리악단에 만흔 공적이 잇슬것으로 기대가큰만큼세분의 유학을 성원하는소래도놉다 고별음악회를압두고세분은 정성을다하야 이미다근재조를십이분 발휘하야 우리악게의조흔 남김을주고저 하고잇슴으로당야의 음악회는 두울게보는훌륭한 음악회가될것이다 당야의 연주곡목은아래의 순서와 가티 명곡중의명곡으로 음악회의효과는 상상이상의 수확을거두게될것이다 또반주는 『뿌-츠부인과『스투데니』씨이다

曲目

1、피아노獨奏 李愛內孃
(가) 子守曲(作品57)……쇼팡作
(나) 諧謔曲B♭短調(作品31)쇼팡作

2、테―너獨唱 李寅善氏
(가) 라―고……헨델作
歌劇『쌜셔스』中에서
(나) 聖母마리아……마스카니作
歌劇『카발레리아루스치카나』의間奏樂에서

3、提琴獨奏 安柄玿氏
協奏曲……뿌르호作
알레그로모데라토
아다지오
알레그로 에네지코

―休息―

1、피아노獨奏 李愛內孃
匈牙利亞狂想曲(作品12)…리스트

2、테―너獨唱 李寅善氏
(가) 우리에기자장……제니사데로作
(나)『이스추리아』의 子守歌

3、提琴獨奏 安柄玿氏
(가) 세레나데……슈벨트作
(나) 로맨자안달루자……사라사테作
(나) 序曲과速舞曲……사라사테作

入場券豫賣所

별항삼인의 연주회의 입장권은아래의 장소에서 예매를하기로되엿다

和信樂器部、麥書樂器店、서울音樂商會、大昌洋靴店、白商會、모록코茶房、푸라타누茶店、비너-스、멕시코、

三樂人本社來訪

십일의 고별 연주회를 압두고 본사 방문은 세분、우로부터 안병소씨、리애내양、리인선씨……

반가운첫就職이 殉職의惡夢으로!

三神炭坑의慘禍中의悲劇

약가운四靑年技師

【聯合平壤電話】 륙일폭발한 삼신동 신천탄항(三神洞新天炭坑) 구원작업은 철야하야계속중인데 탄항에 드러갓든십오명은 모다참사한것갓다 칠일아츰여듧시까지 참명의 시체를겨우발굴하여엇다 발굴칠명중 경성고공(京城高工)을 졸업한 장기현(長崎縣)출신의복전정삼(福田正三)(三三)을비롯하야추전광산전문학교(秋田鑛專)를졸업한고교차장(高橋車藏)(二三)복강현(福岡縣) 출생의 시야차랑(矢野次郞)(三六) 좌하현(佐賀縣)출생의북어문일부(北御門一夫)(三〇)인데 그들은 모다약일주일 전에입소한철눈기사들이다

密山의反滿軍 三百餘名이被殺

六百餘名雄據地襲擊

【電通哈爾賓七日發】 전중(田中)지대는 삼일만주국군과협력하야 밀산(密山)부근에 웅거하고잇는 반만군약륙백의 본거지를엄습하야 약삼백명을 죽이어 궤멸식혓다 남어지는 동남방의 밀림(密林)지대로 도주하엿는데 이싸움에 일본군의 손해는 전사자일명 부상자일명 을내엇다

五龍背附近서 百餘名과激戰

【聯合安東七日發】 련산관(連山關)가등○대(加藤○隊)는오룡배(五龍背)남방이리 오금비(烏金飛)에서 륙일오후네시경 일백오십명의 토병단을만나 교전삼시간에 토병대를 격두하엿는데 토병대의피해는 중상한명 경상두명이잇섯다

五十名을擊滅

對岸에出沒하는土兵들 討伐隊一名도死傷

【聯合安東七日發】 안동의서방사리되는 대불야령(大佛爺嶺)의남방산지에서 안동수비대천천(川田)특무조장이지휘하는 일대는토병해문(海敦)의부하오십명을만나한시간반이나백병전을하야 수류탄으로 전멸식히고 토병을포격하고소총긔총다수를 빼섯다이전투에이등병한명은즉사하고상등병한명은중상하엿다

女給이飮毒

룡산삼각지(三角地)에잇는카페『모던』의녀급일색아시꼬(一色)(二六)는

京城그라운드의 新名所『풀』完成

五月下旬에開場

운동장으로서 수영장(水泳場)아동영장의설비가업서 짝다리 병신의조롱을 면치못하든경성운동장(京城運動場)에는 작년오월부터 구만삼천 삼백원의만흔 예산으로 『풀』(수영장)을기공(起工)하야 오든바최근에이르러 준공을보아 오는오월이십일부터 개장(開場)을 하기로되엿다 『풀-』의 내용인즉 경영장(競泳場) 비입장(飛入場) 아동영장(兒童泳場)등 세곳으로 난위여잇는데 이세곳의 총면적은 이천칠백 이십평으로 경영장은 길이(長) 오십미돌넓이(幅) 이십미돌최심(最深) 이미돌반 최천(最淺) 일미돌반 『코-스』 넓이이미돌반의『코-스』일곱이고비입『풀-』은길이이십미돌 넓이열여덜미돌 최심오미돌 최천사미돌이며 아동『풀』은 길이이십오미돌 넓이이십미돌 최심일미돌일 최천 륙『콘마』륙미(〇、六米)돌로훈련원(訓練院)에새로운 명소를 하나터한세음이다 입장료는 일곱살이상 열다섯살미만일회에이권열다섯이상은 일회에 오권이고 회수입장권(回數入場券)은이십이회권 일원 삼십오회권일원오십권 이고 단체입장은 사람에따라적당히 할인을하기로하엿다 사용료(使用料)는입장료이외에한번을 세시간으로정하고아동연습은한번에삼권단체연습(練習)은팔권개인연습은십권식을밧기로작정하얏다

走高跳의 世界新記錄作成

二米突四로

米國『프레스노』高等學校의走高跳選手『첼다·마데이』君은 去三月十日『스탄포드』大學에서六呎八分五(二米〇四)의 記錄을 지어練習試合에서從來世界記錄『오스본』(米國)의二米〇三을無難히突破하엿다

運動競技

2―2 勝敗를未決

◇決勝은今日京城球場에서

第二日의京平蹴球戰

第二回京城蹴團對平壤蹴球團定期戰 第二日은 京蹴軍한골差로慎敗한뒤를니여 七日午後三時二十五分 培材球場에서 開幕되엿다 (當日審判 鄭文基(主) 林龍業·李永善·李鍾萬(線審)四氏) 開戰벽時風勢를利한京蹴軍 平蹴門前에 肉迫하야 六分과十分에絶好한 機會를逸하고京蹴軍前日에比하야 强味를보이여 三十五分에 LW韓甲錫의『슛』으로첫골을 어드니 前半은一對〇京蹴리―드 後半에드러가 十五分에 京蹴LI崔成孫單獨『드리블』하야『슛』하니보기조케 골인되여 二對〇으로京蹴軍斷然優勢를 보이드니 二點을빼앗긴 平蹴軍總攻擊을 演하야 京蹴門前에서 混戰타가 十九分에 CF金君의 强蹴으로一點을 回復하고 三十五分에LI李貞植 『슛』 하야 또一點을加하니 二對二同點되여이로부터 白熱戰이展開되엿스나 兩軍得點업시『타임업』되여無勝負로마치엇다(閉戰五時五分)이리하야結局平蹴一勝一無勝負京蹴一無勝負一敗로京蹴軍償敗하엿스나 前例에依하야 決勝戰을行하기로되여 今八日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第三回戰을行할터이라한다

【平壤】 FW 李致淳 李貞植 金永鉉 朴義煥 李正現 HB 康仁植 朴基善 尹昌龍 FB 朴洗烈 安炯翰 GK 金信福

3 1 18 門蹴 阻蹴 自由 0 2 18

平壤 2 (2―0 / 0―1) 1 京城

【京城】 FW 韓錫甲 崔成孫 柳鍾鎬 裵信有 金宗集 HB 朴燦秀 宋和洙 鄭龍洙 FB 田基培 金日秀 李容謙 李榮敏 GK 李惠達

安邊思想靑年 檢擧또擴大

四靑年을또檢擧해

【安邊】 함남안변경찰서고등계(咸南安邊警察署高等係)에서는 지난일월초순경에 군내화성면여교리(麗郊里)리주팔(李柱八)김용선(金容善)미현리(美峴里)전후달(全後達)등세청변을 검거하여 동서에 류치식히고 엄중한취조를 거듭하든 중 그중김용선외한사람은석방되고 삼개월동안이나 계속하야 취조를밧고잇섯는데 동서 에서는 무슨새로운 단서를 어뎃슴인지 지난사일에는 몹시긴장한 빗을띄고 대활동을 개시하야군내각처에서 가택수색을 하는 편 미현리에서 김병오(金秉五) 신풍리(新豐里)에서 박준하(朴俊夏)안변역전(安邊驛前)에서 림모(林某)등 네청변을 또다시검거하엿다 박준하의 한사람은 즉일로석방식히고 김병오 신풍표 두사람은 류치취조중이라는바 사건의내용은절대비밀에붓치으로알길이업스나 그중몃청변은 입즉이사상운동에 관계하엿든니만큼 모종의결사 사건혐의인듯 하다고

모모히그린 一圓紙幣

담배사고거 슬음돈회령

오일밤열한시 사실읍활정 부외통장면 아연리 (鵝洞兩里)이백칠십륙번지 담배소매상 송순열(宋淳烈)(三一)의가가에어떤 젊은 사람하나이 와서담배오륙초(五福草)한갑을사고일원짜리 지전을 내후 구십전을거실려갓는데 간후에 살펴본즉파이지권은 먹으로 교묘히그린위조지폐 인것이 발견되엿다 전긔송순렬은 소관통산서에 거출하여왓슴으로 이서에서는 방금엄중조사중이라한다

예까지 생명이 위독하야 의사의말은 회복할수업스나 아마몃칠못가 사망할것이라고한다

日曜講話

▲貞洞敎會 午前十一時 金鍾宇主理牧師 천산하신예수 午後七時半 未定 全明性氏

▲南大門外敎會 午前十一時 『우리가어찌할가』 朱基徹牧師 밤 『心靈의嚴密』 朱基徹牧師

▲府內敎會 午前十一時禮拜 그리스도인의자격 吳泰熙氏 午後七時三十分 만세반석 梁柱三氏

▲勝洞敎會 午前十一時 信仰生活의基礎 崔錫柱氏 午後七時半 그리스도敎人의人生觀 金允經氏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永生 邊永瑞氏 午後七時半 二六運動의目的 金永燮氏

▲覺皇寺 午前十一時 智慧의光 金泰洽氏 英語講習院 午後二時半 英語講話 스파이벨氏

補精强壯劑

大阪朝日新聞報導轉載 衛生課에서實驗證明한學說

大阪朝日新聞報道(轉載) 衛生課에서實驗證明한學說公開

淫羊藿은 支那一部와 平北에서만 野生하는貴重한藥草로古來로부터 上流家庭에서貴重히使用하든藥으로特히補精强壯劑로驚異的効能을 發揮함은一般醫學界에서周知하든 事實이든바 (最近에白石警察部長 自身이淫羊藿엑기스를實驗한바참으로놀낼만한特効잇슴을證明하얏슴으로目下衛生課에서는(모로못도와) 家兎에게淫羊藿엑기스를與하야實驗한結果其効力이驚異的으로顯著함을證明함) 補精强壯劑로 널리紹介하면實驗한効力의依하야 朝鮮人蔘을壓倒할時期가不遠하리라思함(以上은衛生課에言明)

第六回日本藥理學會에서發表한學說

[illegible]

幽玄神秘의 漢方醫術과 現代醫學과의 完全한融合에依하야創製된劃期的興陽强壯劑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illegible]

世界的靈藥 淫羊藿엑기스錠

主治適應症

房事過度、手淫、早漏、遺精、夢精、男女不感症、性慾減退、腎氣不足、補陽精力增進、性的神經衰弱、消化不良、貧血、冷性、健忘症、食慾不進、補藥

價 二十五日分五圓、六十日分十圓、百三十日分貳拾圓

京城公平洞八八 製造元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八九二·電光一三五六

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本町 木村藥房

朝鮮鑛業時報

四月上旬號出來一個月料金卅錢

三大新業務開始

△製圖及測量事務의開始
最新式製圖、測量機械를完備하고高明한技術員이迅速精製로酬應함(本紙讀者에限하야는定額의三割減)

△鑛坑機械裝置及設計酬應
京城內大鐵工場과特約下에鑛坑에裝置할機械를時價보담低廉한價額으로酬應함

△鑛山技術員講習會開始
但詳細는追後發表함

京城府仁寺洞七二 朝鮮鑛業時報社 電光二一三三 振替京城一三二四六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成績順位박군것은 品行問題라答辯

學父兄側이憤慨하야質問攻擊

事態險惡으로校長避身

【新浦港】 긔보=진남포사립 독신학교(得信學校)에서금년도 졸업생 무시험입학추천생(無試驗推薦生)문제로 진남포교육계 의큰파문을 일으키고잇다 함은 긔보한바 어니와 그후김교장은 아모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안 을뿐아니라 순서를따라 추천하 여야할 칠팔구번(七、八、九、番) 은 가정형편도잇거니와 품행는 제라고 한다는말을들은 학부형 들은 지난오일학교사무실노 달 녀가서 무시험추천에빼여 노은 것도억울한데 품행문제라고 한 다니 엇던놀적증거를 내여노으 라고질문과 공격을하기 시작하 여사무실은 일시수라장이 되고 말자 김교장은형세위급함을 압 고몸을피하여버리고말엇다고한 다

엿다한다

緊急理事會開催하고 校長解職을決定

擔任敎員은嚴重說諭

권긔와갓치 형세는 점점악화하 여입이미연에방지되지못할것을 각오한리사장김성택(金聖鐸)씨 는오일오후팔시반부터장노교례 배당(禮拜堂)안에서긴급히리사 회(理事會)를소집한후리사회에 태도를 알어보려고 모혀든학부 형들과신문긔자(新聞記者)까지 퇴장을명하고 밤이늣도록 토의 한결과 교장의책임문제가 된다 는등 아니된다는등 의론이분분 하다가 결국교장은인책사직(引 責辭職)케한것과 담임훈도한재 봉(韓在峯)씨에게는위원을선정 하여 주의를명하도록 가결한후 폐회하엿는데이것으로문제는일 단락을지엿다고하겟스나학교가 교회에경영이니만치교회에까지 엇던영향이밋치지나안을넌지더 욱주목되는바이라한다

大石橋普校 增築義捐遝至

【奉天】 봉천성심양현제오구(奉天省瀋陽縣第五區) 대석교(大石橋)보통학교는지금으로부 터십오년전 동아권업회사(東亞勸業會社)와봉천거류민회(奉天居留民會)의후원과 보조로첫소리를세상에 내인후 오늘날까지 수백의 아동을수용하엿고 수십명의졸업생을 내며 만주동포교육계에만흔공헌이잇든바금번화교교실의협착을느끼동교교장김도룡(金道龍)씨 이하 직원일동은교사증축을 목적하고 백방으로 노력한결과 여러인사들의 적지 안은 의연이잇서 금춘에 이천원여의 신교사를 증축하는동시 내용도 일층충실이 하리라하는데 이제의연을주신이의氏名과금액은다음과갓다 한다

▲金五百圓也 東亞勸業會社 ▲百五十圓也 奉天居留民會 ▲金二十圓也 新築商會 ▲金十圓式 [illegible] 黃[illegible] 吳斗煥 [illegible] 洪[illegible] ▲金八圓也 金[illegible] ▲金五圓式 大興精米所 李[illegible] 鄭辰洪 大同洋行 白炳奎 尹[illegible] 李[illegible] 三興公司 林[illegible] 李[illegible] 朴連浩 白有英 徐海奎 林[illegible] 李[illegible] 三益公司 金大玉▲金四圓也李鉉三 金三圓式永興商店 徐[illegible] 崔[illegible] 金元珠 三[illegible]公司 牛島商店 三正洋行 尹[illegible] 金命吳 美濃洋服店 朴[illegible] 朴文[illegible] 李鉉一 申[illegible]▲金二圓式 李[illegible] 和信商店 秦平洋行 新[illegible] 金[illegible] 金[illegible] 金光淑 李[illegible] 金[illegible] 勝美洋服店 日光商店 吉[illegible] 金學[illegible] 金鳳官 申相佑 京和旅館▲金一圓式 仁川商店 大同精米所 朝鮮商店 順興精米所 新[illegible] 大成洋行 [illegible] 金[illegible] 金基榮 [illegible] 鄭[illegible] 白[illegible]洋行 [illegible] 官 朴炳德 李[illegible] 金[illegible] 趙炳[illegible] 漢陽旅館 [illegible] 慶北旅館 信[illegible]商會 ▲金五十錢式 金[illegible]▲金二十錢 金士玉

仁川細民層에 飮料水大不足

水道料는高價、井水는不潔

【仁川】 인천부의수도관매제가실시한후부터 빈민들은 물갑이비싸서 우물물을 마히먹게되엿다함은 임이보도한바 어니와 인천경찰서 위생계에서는 부민위생에 막대한 관계가잇다하야 시내각동리의 우물일백 이십칠개소의수질(水質)을조사하기위하야그물을 인천부 위생계로보내어시험을 한결과 음료에적당한우물은 실륙개소밧게 아니되고끌여서 먹을우물이 이십사개소인데 그부적당한 우물은 칠개빈민굴인 신화수리(新花水里) 만석정(萬石町)화평리(花平里)송현리 (松峴里) 도산정(桃山町) 등지에 잇스며 경찰은 그러한우물은 절대먹지못하게금지하게되엿슴으로우물물을공급하든빈민들은음료수부족으로자못공황에빠저잇다한다

地方人事

▲金鷹泰氏(牧師)赴任人事次去四日本報公州支局訪問

▲鄭大龜君과朴呂玉孃의婚禮式을來七日公州郡反浦公立普通學校講堂서擧行

▲金範世氏(敎員)公州永明普校 二日에就任

▲姜安息氏(敎員)同上

▲妹尾聰子氏(敎員)同上

▲森川藏氏(小井里驛役手)本月五日仁川驛榮轉人事次本社慶豊分局來訪

▲趙昌錫氏(鎭川監理會牧師)新任人事次로本報鎭川支局來訪

▲本報牙山支局長 洪承復氏長男泰植君과 仙掌驛前金柄濟氏長女와의婚禮式은 新婦自宅에서 來十一日擧行

洑改築賦役에 四十餘作人不平

莫大한費用과時日을要하게돼

作人農繁期에大困境

【梁山】 경남양산군하북면답곡리(梁山郡下北面畓谷里)소재 인목동(鹿洞) 새멀보는 사백여 두락의 몽리면적을가진 큰보(洑)로서 작년대홍수에 그흔적 도업시떠내려가고 마럿는데 농번긔가 갓가워옴에 일반몽리작 인들은 지난삼월、십사일부터 개축공사를 착수한바 반달을 경과한 오날에야겨우 소용되는 재목의운반을 마첫스나 이가완 성되기까지는압흐로일개월이란 시일을 요하며 부역인원은오백 여명으로사십여작인에매인당십 여명의인부를내지아니해서는아 니될 모양이며 이에소용되는비 용은사백여원으로서 그중지주측 부담은겨우 일백륙십원에 불과 함에 소득업는부역에 일개월이 상의시일과 막대한 비용까지내 여야될 작인들의 궁촌연명이우 려된다고한다

現金携帶코 無斷히出家

【海州】 해주군운산면황금리

春風을미끼삼아 女子四名을誘拐

未然에發覺되어被逮

【高原】 요사이함남고원군하(咸南高原郡下)에는묘령의녀자 삼사명을 유인하여가지고 봄바람과함께 다러나려고하다가 미연에발각되여 당지경찰서(當地警察署)유치장신세를지고 잇는 청년이잇는데 그는고원 군하 발면동양리김무철 (高原郡下鉢面東陽里金無哲)(假名)이란 청년으로 동군동면대수곡리 윤다애(大水谷里尹多愛)(假名)란녀자외 한명과동군 군내면사창리(郡內面泗昌里)녀자두명을유인하여가지고다러나려고하다가그만사실이미연에발각되여방금고원서에서유치취조중이라한다

安秉德女史의特志

【求禮】 구례군간문면월전리(艮文面月田里李泰基)리봉기 란사람은 생활난으로 구차한살 림사리를하든바 지난이월 십륙일에본처장씨(張氏)가녀아를분만하고먹지못하는가운데도한병마로산후사흘만인십구일에비참이도 죽게되자 도저히아비의손으로는기를수가업서영아의생명 재경각지경인례구제을봉동 리안병덕(鳳東里安秉德)(三〇)부인은 정상이가긍타하야 자진대려다정성것기르다하야일반의칭송이매우놀르는중하간다한다

平高講堂建築工事 談合事件擴大?

六名檢擧코嚴重取調

【平壤】 작보=평양서에서룡 일아침부터 대활동을 개시하여 정오까지에부내의저명한토목청 부업자륙명을검거한후고등계에 서엄중한취조를계속중인데사건 의내용을조사한바에의하면작추 시행된 평양고녀대강당 건축공 사입찰당시에 지명입찰인 사이 에서담합을한것으로목하담합사 건에관계되여 검거된 가운데는 중평조(中平組)대향조(大香組) 구보조(久保組)시야조(矢野組) 등의 관계자 대향장시(大香庄 市)시야행일(矢野行一)구보룡 차(久保龍次)중천학삼랑(中川 鶴三郎)등 정정태랑(藤井定太 郎)중평중차랑(中平重次郎)등 의륙명이라한다 취조에따라 사건은 확대될모양 이며 담합사건이평양에서는처 음인만큼 각방면으로 주목을끄 울고잇다한다

中等校合格者

平壤師範學校

黃甲周 金明煥 金仁湖 尹泳濟 金禮學 金雲夏 金吉錫 曹瑞煥 車斗觀 朴命七 金讓弘 兪熙哲 史熙俊 李昌檜 閔泳祿 金炳憲 崔泰日 全時德 禹實鎬 洪在豐 韓德淳 金永軒 太河奎 安熙瑞 姜壽山 金裕敬 車命善 張永完

平壤崇實學校

趙鍾相 金鍾九 朴觀瑛 金錫瓚 李命德 全性煥 洪璣稷 宋源燮 金炳洙 文潤鎬 趙甲守 尹載宣 崔上岩回 李浚景 姜東允 金昌俊 柳敬化 崔文翼 朴潤恒 金尙傑 秋尙鳳 崔斗經 承允明 李玉涉 嚴敎信 金秉淵 曹傑善 白東星 李爾善 崔觀麟 金大湜 金元杓 金元敏 朴潤穆 朴潤泰 韓利國 吳龍國

鄭熙燮 李勝順 金鍾哲 朴寅禮 崔明濂 丁曉植 鄭樂均 洪致淳 文範韶 金貞根 洪正根 康大俊 金炳淑 金命俊 李龍瑞 李潤哲 金基德 李祥彬 崔呈實 丁存秀 金允培 金允聖 金鍾憲 朴昌勳 趙東浩 白利順 張在明 崔觀基 李泰煥 申基豐 申榮瑞 朴利柱 朴昌鎬 張基寶 金信泳 金明鎬 金昌錫 鄭熙順 康禧國 安致烈 金元熙 曹在星 林春植 林炳卨

朴觀模 金善鉉 金炳植 崔鳳周 張春德 玉宗燮 禹泰河 金榮鎬 吳正寬 全順明 車仁德 金聖鐵 崔銅八 曹廷旨 金河鎭 康貞柴 吳吉文 朴貞淑 金鍾重 金永模 韓址榮 金韓信 李成喆 鄭梡模 徐利賢 金潤植 朴濟斗 金宗鎭 康元泰 崔成根 康德花 南時龍 方雄吉 金光瑞 嚴德信 李成業 鄭寬稿 林奉燁 崔元福 金承裕 玉昌植 宋貞豪

南監理敎會年會

【元山】 시내남산동야소교례배당내에서 이일부터 팔일까지 조선기독교남감리교회주최의동부(東部)제사회년회(年會)를개최한바 대표목사와 신도대표등 일백이십여인이 모히여 성황을 이루엇스며 매일밤 일반공개의 강연도잇섯다한다

求禮郡內普校 授業料一切減下

十五錢、十錢、二十錢式

【求禮】 구례군내에는현재륙개공립보통학교가 잇는데청천、토지(淸川、土旨)이교외에는권부륙년제인데 금년부터 각학교수업료를 일제감하기로한바 륙년제학교는 일학년부터 오학년까지 종전수업료에서 십오전을감하고 륙학년은 칠십전을륙십전으로 감하고사년제학교는 륙십전을 사십전으로 감하기로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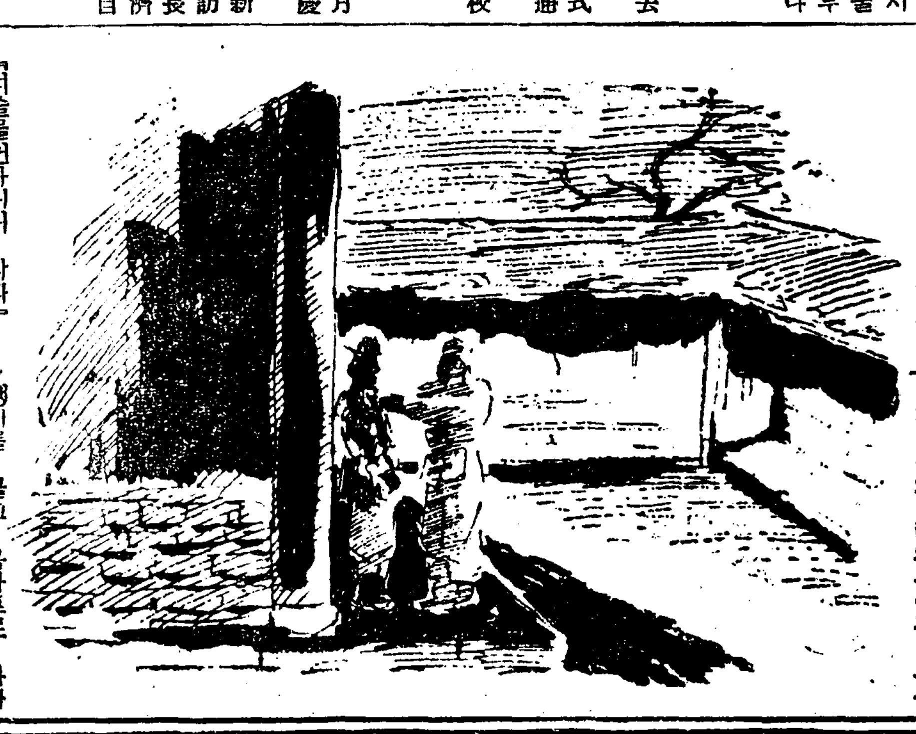
現金强奪하여 遊興타被逮

【義州】 긔보=의주군주내면서호동(州內面西湖洞)삼백삼십구번지강려황(姜呂璜)(二元)방에침입하야 현금백원을 강탈한강도의주군위화면북하동(威化面北下洞)에서 선부(船夫)노릇하는안정호(安禎浩)(三〇)를지난오일오후칠시경에신의주미륵동(彌勒洞)모음식점에서강탈한돈일백원가운데서이십여원을랑비하면서 유흥하다가 피체되엿다고한다

林巨正傳 (451)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서림 三의十四



옥사쟁이가 처음에 던왕동이게 끌려갈때는 속으로 은근히 무엇을줄까하고 바랏든데 급기 옥뒤에 들어가서는 한것하는말이

『오늘밤에 틀이잇거든 나하구가티 술먹으러가세』

하는 십부장 스러운소리라 옥사쟁이가 사람이 부처님의 중간토막이라도 틀이 안날수 업섯다

『이놈아 누가 너더러 술달라드냐』

『이놈저놈 안하구는 말못하난』

『백정놈더러 놈이라구못하면 누구더러 놈이라구하란』

『나는 백정두아닐세 황해도 봉산서 장교다니시든 어른이야』

『백정놈의 부치루 의관하구 다니며 거짓말하구 그건만두 귀양갈죄다』

던왕동이가 물쿡한품에서 똘똘뭉친 때무든수건을 끄내더니

『너좋을건아니니 바란』

하는듯이 옥사쟁이눈아페 훌훌 털어서 얼골을 씻섯다

『한놈은 날붓잡구 실랭이하구 한놈은 가친녀놈들하구 짬짬이하구 너의놈의패 다 알엇다』

하고 옥사쟁이가 급히 돌처서나가라는것을 던왕동이가 쪼차와서

『내말좀 듯구가게』

『손 놔라 못노켓느냐』

하고 손을 꽉 잡엇다

『글세 잠간 내말좀 듯게』

『이놈아 말이 무슨말이냐』

『관가에 드려간 물건이잇지 그물건을 차저내오거든 자네를 좀 논하주두룩 내가 들어서 말함세』

『이놈이 누구를 놀리난』

『놀리는게 무언가 참말일세 만일 그물건을 못차저내게 된다면 내가 소매돈냥을 해서라두 자네의수구를 갑흘 테니 가친사람들을 좀 잘 봐주게』

『무엇이 엇재 가친년놈을 잘봐달라구 오냐 잘봐주마 팔개를놀지구 저승으루가두 잘봐주마』

『지금한말 한번다시해봐라 네놈이 만일 가친사람몸에 털끗만치라두 손놉대면 네놈의배때기에 칼이 들어갈 테니 그리알어라』

『이놈이 누굴 얼르나 경칠 놈가트니』

『여봐아 누가 경을치나 또구보려는난』

옥사쟁이와 던왕동이가 서로욕질을하는중에 꺽정이가 들어와서 옥사쟁이를 보고

『가친아이하나가 방금죽어가니 물한목음만갓다먹여주우』

하고 청하엿다

『내가 너희와 십부장군인줄 아느냐』

『십부장군아니면 사람죽는걸 가만두구볼테요』

『재면쩍려 뒤어지는걸 내가 알배잇느냐』

『이놈 십보조라 어듸보자』

꺽정이가 옥사쟁이를 떠밀어서 잣바트리고 다리를 잡아서 끼구로 치켜들엇다

『물을 갓다먹일테냐 엇절테냐 말해라』

옥사쟁이의고개가 끄덕끄덕하는것을 꺽정이가 나려다보고

『내 동생이 죽기전에 네가 죽지안흘라거든 물을 갓다먹여라』

하고 다리를 나려노핫다

꺽정이와 던왕동이는 옥사쟁이를 끌고 옥아므로 나와서 곳 물을가질러 보낸뒤에 꺽정이가 창살아페 와서서 백손이더러 말을 물엇다

『좀 피어낫느냐』

『아무리보아두 아주죽은것갓소』

『손발이 어떠냐』

『발은 만저보지못해서 몰으지만 손은 어름짱갓소』

『코미테 손을 대여보앗느냐』

『더운김은 업서지구 찬김이 나우』

『젓가슴은 뛰느냐』

『가만잇소 만저봅시다 제미 칼이 걸려서 맘대루 만저볼수두업네 아이구 살이 차되차우 조금두 뛰지안소』

『아이구 그러면 아주죽엇구나 여보 누님 팔삭동이가 죽엇다우』

꺽정이는 옥아페 주저안저서 눈물만 좍좍 흘리고 애기어머니는 옥안에서

『아이구 몹상해라 얼뜬위인이 죽엄까지 얼뜨게했네 아이구 불상해라』

이런말로 넉두리하면서 울엇다 옥사쟁이가 저의집에를 몃고팽이 왓다갓다 할동안이 지나도 오지아니하야 던왕동이가 괴이쩍게 생각하고

『형님 고만 집으루갑시다』

하고 꺽정이를 붓들어닐으킬때 훕세 아우성소리가 들리며 창칼가진 관속한패가 옥아므로 쫏차들어왓다

どれを讀んでも面白い！爲になる大讀物ぞろひ

▲腕きゝ新聞記者座談會
初めて曝け出された新聞社會の裏の裏、驚愕！讃嘆！抱腹絶倒！トテモ面白い
東都十大新聞著名記者の僞らざる打明け話
◆敵味新聞の競爭 ◆自轉車に乗れないで縮つた話 ◆大釜さんの一喝で縮み上る ◆東郷さんを驚かした男 ◆命がけの目に遭つた話 ◆ひどい失敗で腰を抜かした話 ◆驚いた話くるしかつた話 ◆大官の死を早く見抜く法 ◆刑事を追跡して泥棒と間違へらる ◆突發人物の寫眞を手に入れる苦心 ◆記者生活の苦しさ、淋しさ等々 苦心談あり、怪談あり、失敗談あり、珍談あり、美談あり、近頃珍らしく面白い座談會。

▲岡田大將漫畫世渡り問答（和田邦坊）
輕妙な漫畫と漫文、面白い中に處世の極意が分る漫畫世渡り問答
▲金語樓滿洲土産ばなし……柳家金語樓
▲腹を立てながら笑つた話〔五名家が今まで人に語らなかつた特ダネ〕
▲お婿さんお嫁さんを選ぶなら〔サトウ・ハチロー氏の愉快な小唄〕

名士実演餘興くらべ
……この方がと吃驚する素敵な珍藝奇藝、寫眞入りで御紹介。
▲儘になるのが世の中……大迫元繁
▲富士山に登つた老人の話……秦 慧昭
▲大入滿員漫畫レヴュー館
▲三越で使ふお客樣接待用語
▲樂聖トスカニーニ 樂譜の圖書館といはれる大天才の生立ち
▲時事問題早わかり……
▲腹が立つた時、立ちさうな時……
▲美味しいものを語る 名家が各地の名物、我家の自慢等珍味を語る、誰方も御賞下さい。

轉覆した軍艦の中に三晝夜
九死に一生！ 軍艦「新高」遭難 水兵の手記
北洋警備の重任を帯び鐵路についた「新高」が難航、ついに轉覆した當時の生還者が綴つた壯烈な手記。殉職勇士の沈着な態度 美談等さまざま 人の胸に迫る 何人も見よ

内務省後援映畫・新興キネマ特作
壯烈 悲痛 消防手 竹田敏彦
…警鈴の音と共に消火に出動した鉄之助が大活躍、人命を救助して大負傷するまで、その中にも美しい戀の花が咲いた
楠公會推薦脚本・歌舞伎座上演の大傑作
感動 感激 楠公櫻井驛 眞山青果
…建武中興六百年祭を記念するため巨匠が熱筆を揮つた大戯曲、大楠公の胸底に燃ゆる忠誠至誠の大氣魄、當時の世相紙面に躍如たり

大いなる朝 牧逸馬
全日本の人氣を集めた面白い大傑作！
遺兒を守る可憐な美女絹枝に色魔雄策の毒手が迫つた……

探偵小說 妖蟲 江戸川亂歩氏の大傑作
評判の美女を誘拐して惨殺する殺人鬼が、警官隊の包圍を脱し人もなげなる奇怪な大犯罪！ 怪奇！戰慄！

輝く友情 開かずの金庫 保篠龍緒
病妻を抱へて苦しむ貧しき友に温い友情
報仇馬術 相競ふ花一枝 小泉長三
恐ろしい荒馬を乗りこなし主人の恨みを晴らす下郎係八の苦心
報恩美談 松魚の味 森曉紅
棟梁の苦難を見て奮起した文吉の恩返し

劍道上達の急所
斯界一流の大先生方が劍道上達の急所を何人にもスグ應用できる樣寫眞入りで公開 見よ！
▲劍道と日本精神…陸軍大將 荒木貞夫
▲構へに就いて……範士 高野佐三郎
▲擊ち突きに就いて……範士 大島治喜太
▲打込みと體當り…敎士 白土留彦
▲技に就いて……範士 檜山義質
▲間合の微妙……敎士 橋本統陽
▲氣合の妙用……範士 齋村五郎
▲異種の武器に對して 敎士 堀田捨次郎
▲上達の急所はこれ 範士 中山博道
以上名家が上達の急所、妙訣を分り易く公開す

戀山彦 吉川英治
名鷲山彦を繞り美女お品に魔の手迫る！
▲大衆小說 萬五郎靑春記 野村胡堂
▲武俠小說 靑空無限城 三上於菟吉
▲軍事小說 敵中横斷六百里 山中峯太郎
▲現代小說 金環蝕 久米正雄

▲新作講談 稻葉小僧新助 神田越山
▲現代小說 珠は碎けず 加藤武雄
▲時代小說 鬼伏せ頭巾 村上浪六
▲諧謔小說 勝ち運負け運 佐々木邦

回像月像 菊池寬
戀愛の美人に裏切られた謙之助の苦惱！讀者皆泣く

武勇講談傑作集
▲武藝の譽 鐵扇美人 柴田南玉
▲海賊退治 波間の血煙 大島伯鶴
▲忠僕仇討 一突半助 寳井馬琴

キング 五月號
大懸賞 一萬六百八十五名當選大懸賞！ ハガキ一枚で誰にもできる大懸賞！素晴しい賞品山の如し!!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東京本郷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三九三〇

世界一週記 (本社專刊)

世界大博覽會 (十二)

李順鐸 記

科學館에는 數學, 物理學, 化學, 生物學, 地質學, 機械學, 醫學, 藥學, 天文學等諸般現代科學의 人類生活에의 應用狀態를 遺憾업시 施設하얏다. 그리고 交通館에는 現代交通手段과 그 附屬設備—「제네랄, 모터」工場에서는 自働車製造의 工程을 現에 作業하면서 觀覽에 提供(내가 보는 동안에 有名한 「쉬뿌르레」號自働車가 第九百十五萬三千八百八號가 完全한 商品으로 나오더라) 電氣館에는 今日人類生活에 縱橫으로 無限히 利用하는 電氣機械器具 裝置의 應用과 無電, 傳信館에는 「라듸오」 「테레비죤」 等의 發達相 建築館에는 內部에는 家屋內部造作物의 展示 外部에는 庭園에 各種新式家屋의 實物 「모델」의 陳列

農民館에는 農業에 利用하는 各種高級農具의 裝置 主要農產物의 標本陳列 食物館에는 現代文明人의 日常食料品及諸多의 食物製造過程의 施設作業 宗教館에는 各種宗教의 信仰崇拜形式의 展示 米國政府館에는 政府附屬各省의 活動狀況表示

(特히 注目된것은 外務部에서 出品한 大朝鮮國大君主의 信任狀이엿다 이信任狀은 千八百八十八年正月十七日에 大朝鮮國大君主가 大亞美理駕合衆國에 全權大臣朴定陽을 보낸다는 信任狀인데 純漢文으로 쓴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一般人目의 가는 곳에 展示해노은것이 나에게는 한 興味를 주더라)

天文館에는 米國에 唯一인 「쩌이스」式投射裝置를 爲始하야 (이器械로 天體를 投影식힌다) 光線이 地球에 達하기에 四十年이 걸닌다는 北極星으로부터 光線을 잡는 光電裝置 無數한 이方面用의 器具가 羅列되여잇다. 이外에 今日人類社會의 底邊에 登場되는 모든 人間의 行爲及行動도 그 崇高한것으로부터 低劣한것에 이르기까지 거의 全部볼수가 잇는것은 이 博覽會의 會長 「도스」氏以下 諸委員들의 努力의 一端을 엿볼수가 잇더라.

다음에 各國의 出品展覽을 逍歷한즉 제각금 그나라의 紹介에 全力한다. 特히 그 文化와 產物이다 中華共和國의 熱河喇嘛寺는 人氣의 焦點이며 滿洲의 蠶業工程은 訪問이다. 各國이 이러한 態度로

人氣를 끄러 文化와 產物을 宣傳하야 有形無形의 所得을 圖하는것은 엄청난다. 日本에서의 出品은 滿鐵과의 日本館의 施設外에는 업고 商人도 少數인데 今年에는 政府에서 積極的活動을 策한다고 한다. 某日人의 傳하는 바에 依하면 너무 積極的으로 活動한 結果 米國人의 感情을 사면 害라는 見地下에 萬一 反對로 活動을 積極的으로 해서면 有形無形으로 큰 利益을 어덧스리라하면서 據히 섭섭히 생각하고 따라서 明年의 再開期를 苦待한다고 한다. 朝鮮人의 活動은 數人의 香商이 中華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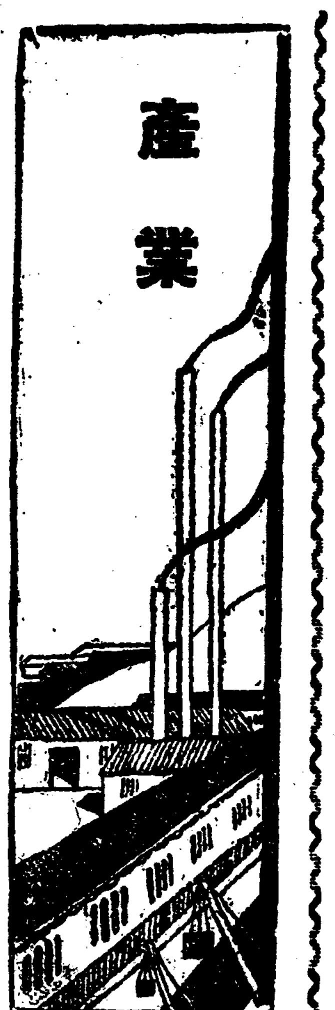
香商間에 競爭이 잇는 所以는 이 數人의 外엿스나 大利는 업섯다고 한다. 말드른즉 이때문에 國民會에 裁判까지 되엿섯다고한다 이러한것에도 合作을 못하는것이 朝鮮人의 根性일까. 이香이라는것은 木炭을 主要原料로하야 製作한 朝鮮土墨形의 香인데 近來米國에서는 거의 家家戶戶에 이것으로써 焚香하야 그 냄새의 口臭, 腐臭, 乃至食物의 臭氣等을 飛散식힌다고 하는데 엇던 連鎖店式의 十錢均一店에는 品으로 나온것을 본다. 이러하야 今日 米洲의 朝鮮人은 거의 全部가 이 行商인데 前과 달나서 이것도 行商의 利益이 競爭者의 多數로 因해서 減殺된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市場의 硏究와 調査를 거울니 하지 안코 可能한 數種의 商品을 發見하면 더 만흔

利益을 期할수 잇슬가 하는데 이런 點에도 創意力을 보지못하는것이 朝鮮人의 低能일까.

今番의 世界博覽會는 今年의 豫想外의 好成績으로 因하야 明年六月一日에 再開하기로 決定햇는데 今年에는 英國等大國家의 協力이 업섯스나 明年에는 可及的 多數國家의 協力을 끄을어 더욱 大規模의 大施設로서 面目을 一新케하려고 計劃한다고 傳한다. 이에 對한 人氣 벌서부터 活氣를 보이는데 朝鮮에서도 各界의 人士가 協力하야 朝鮮館을 施設함으로써 一方으로는 朝鮮의 文化宣傳 他方으로는 朝鮮의 物產紹介 乃至商品의 市場開拓에 努力하면 相當한 利益을 어들수가 잇지 안을까하는데 協力을 못하고 創意力이 업고하면 이亦 弄筆者의 空想에만 끗치고 말것일까.

產業

朝鮮米의 重要性
經濟機構와의 聯繫 (五)
廿四年前以來쌀타령



朝鮮米의 取引과 輸送

前記와 如히 國勢檢査書바든것은 約千三百萬石가량이고 이大部分은 消費市場으로 나간다할수잇슴으로 朝鮮米의 取引高도 重複을 除하면 이程度일것이다 이제 朝鮮內主要十一都市의 米商人數와 取扱高를 보면 商人總數千六百八十八名 取扱高九百八十二萬四千餘石을 示하고 大槪仁川 群山 大邱 釜山 鎭南浦의 輸移出地의 取扱이 만하 前記出港에서 總量의 八割一分强을 占하고 잇다 其他의 都市는 大部分이 地場消費만이라고 하야도 틀림업다

昭和六年中主要都市朝鮮米取扱人及取扱高調査

	朝鮮人 取扱人數	朝鮮人 取扱高 石	計 取扱人數	計 取扱高 石
京城	二五〇	三〇〇,〇〇〇	四一〇	五五〇,〇〇〇
釜山	一三三	三六〇,〇〇〇	二九七	一,二五〇,〇〇〇
大邱	一一七	四三三,九〇〇	一六六	一,一七六,一〇〇
木浦	六五	三一一,〇〇〇	八一	七四九,九〇〇
群山	七八	二〇四,〇〇〇	七七	一,九一〇,〇〇〇
仁川	八〇	七一三,八〇〇	八一	二,三五八,八〇〇
平壤	一五六	三四八,〇〇〇	一六九	四二三,一〇〇
鎭南浦	一三〇	二八七,一〇〇	一三六	八九五,一〇〇
新義州	二一	九六,八〇〇	二七	一〇六,九〇〇
元山	一〇〇	三一,五〇〇	一二〇	一二五,八〇〇
淸津	六四	三六,八〇〇	九九	五八,一〇〇
計	一,一三六	二,三五四,七〇〇	一,六八八	九,八二四,六九〇

勿論右取扱高는 多少重複이 잇다할지라도 大體로 前記主要都市에 八百萬石內外의 取扱이 잇슴은 立證할수잇다 다음에 朝鮮內 各營業倉庫에 保管된 最近各月末의 米保管個數와 總貨物保管個數와를 表示하면 左表와 갓타야 米는 總保管個數의 六割乃至九割을 占하고 잇다

朝鮮主要都市營業倉庫米在庫高調査(單位個)

	米	總計
昭和六年一月末	六九九,七六九	一,〇二七,四二四
同 二月末	六八八,九九七	一,〇八三,三六五
同 三月末	七四四,三二〇	一,一三三,〇三二
同 四月末	八八一,一三一	一,四三〇,五四一
同 五月末	七七五,一七二	一,二九五,三四九
同 六月末	五五七,四三一	一,〇六八,四三一
同 七月末	三二五,七六四	八九九,五二五
同 八月末	三二〇,九六四	七二〇,九二一
同 九月末	二四一,三四八	六三五,九八二
昭和六年十月末	二七一,七一三	八三〇,五五九
同 十一月末	一,〇〇五,一〇四	一,六六八,九二六
同 十二月末	二,〇四三,〇六六	二,九〇八,八〇四
昭和七年一月末	二,七一八,九〇五	三,八八七,八六九
同 二月末	二,八八〇,一三五	三,七四八,七三三
同 三月末	二,八七三,一三三	三,六六九,一〇六
同 四月末	二,六九九,三六九	三,四六一,八六五
同 五月末	二,三〇六,八八六	三,一七八,三三四
同 六月末	一,九六三,一七三	二,五〇六,五四〇
同 七月末	一,一五三,一四一	一,七六四,〇六九
同 八月末	八四四,五三〇	一,三一一,六三二
同 九月末	四三三,五七〇	八八〇,八二六
同 十月末	一六八,二三八	三九八,六八五
同 十一月末	四四〇,七四五	八九七,八三〇
同 十二月末	一,一七六,八〇七	一,五四八,六九二
昭和八年一月末	一,七六九,七七二	二,一六四,四〇七
同 二月末	二,五三三,四四八	三,〇六六,二三七
同 三月末	三,四一八,六六九	三,六九九,〇四一
同 四月末	二,五九九,七四七	三,六〇一,四五三
同 五月末	二,五三九,七四七	三,〇六六,七五〇
同 六月末	二,四三五,一八五	二,九四一,五六〇
同 七月末	一,九七〇,三七一	二,六七六,七六一
同 八月末	一,三四三,八〇七	一,八六二,三五一
同 九月末	七七四,九九八	一,一〇八,二六八
同 十月末	四三三,二一五	七四三,〇三二
同 十一月末	六九七,〇五四	一,四〇一,一三四
同 十二月末	二,四四九,九九八	二,八八三,〇五四

前表와 가티 新產米의 出廻期인 十二月부터 增加하야 翌年端境期에 갓가운 七八月頃까지만 이는 產米量과 需給의 關係도 잇스나 昭和五年中까지는 營業倉庫面積도 比較的적든바 昭和五年秋朝鮮米穀倉庫株式會社가 設立되여 昭和六年부터 各輸移出港에 倉庫를 新設하고 또 當局에서도 集散地及產地에 農業倉庫建設에 努力한 結果 六年米부터는 保管量이 激增하고 其後八年中까지도 漸次新設에 努力하는바 잇섯슴으로 右表에 表示된바 가티 總保管量은 勿論 米의 保管量도 激增하야 昭和八年三月末에는 三百四十一萬餘個이나 保管하고 잇다

如斯히 營業倉庫의 保管貨物은 大部分米로 占領되여잇슴은 米以外의 諸商品의 荷動 即取引이 僅少함을 알수잇는 同時에 米가 商取引界에 占하는 地位도 明白하야젓다

平南道耕地狀況

【平壤】 平南道內 八年末現在의 總耕作地面積은 三十九萬五千五百九十三町步(畓 七萬七千三百三十一町步 田 三十一萬八千二百六十二町步)로서 比率로보면 田이 約八〇、五%, 畓이 一九、五%로 되엿고 그分布狀況은 畓總面積에 對하야 平坦部七二、七% 中間部二五、〇% 山間部二、三%로되야 平原, 安州, 江西, 가 主要地이고 田의五〇%는 平坦部에分布되엿다하며 그러고 自作面積이 耕地總面積의 四四、五% 小作面積이 五五、五%라고한다.

主要工產物需給 (十)

▲粗糖=輸入二十一萬八千二百二十一圓 移入六百五十八萬五千九百六十八圓 (DSNO22未滿의것)

▲精製糖=生產額七百四十八萬二千七百七十五圓 輸入五百五十三圓 移入九十二萬四千三百二十三圓, 輸出二百三十五萬四百九十八圓, 移出百九萬七千九百九十一圓 需要額四百九十五萬九千百六十二圓

▲糖蜜=生產額十萬五千五百二十九圓, 輸入二百二十三圓 移入三十二萬六百三十八圓 移出二千九百二十八圓

▲菓子(飴果包含)=生產額六百七十二萬一千九百五十圓

▲팡(菓子팡은包含)=生產額七十一萬六百八十圓

(菓子팡等의 輸入은二千八百一圓이오 移入은二百四十六萬三千百九十四圓이며 輸出은三千七百四十四圓이다)

▲水飴=生產額八十五萬四千八百五十一圓 移入九十八萬六百六十六圓

罐詰

▲牛肉=生產額十二萬五千六十圓 移出二萬五千八百八十七圓

▲其他의鳥獸肉=生產額十八圓 輸出七千四百五十三圓 移出十一萬八千九百九十五圓 (移出中에는 蔬菜果實核子類를包含)

▲鮭=生產額七萬一千五百四十六圓 輸出九千百三十七圓 移出三萬四千九百四十三圓

▲鯖=生產額七千八百圓 輸出三百六圓

▲鰯=生產額三十五萬四千三百八十一圓 輸出一千六圓

▲鮑=生產額四萬五千三十九圓 輸出一萬五千三百十八圓 移出一萬一千二百七十二圓

▲蟹=生產額二十二萬五千五百五圓 輸出四千八百九十四圓 移出十七萬七千五百三十圓

▲果實類=生產額六千五百五十二圓

▲蔬菜類=生產額二萬六千八百二圓

▲其他=生產額十二萬六千四百八十六圓 輸入五千十三圓 移入百十二萬六千七百十六圓 輸出二萬五千百五十八圓 移出二十四萬四千五百八圓 需要額九十八萬七千九百九十圓

▲計=生產額九十八萬九千百八十七圓 輸入五千十三圓 移入百十二萬六千七十六圓 輸出六萬一千二百六十二圓 移出六十一萬三千百三十五圓 需要額百四十四萬五千八百七十九圓

▲果實及蔬菜類의瓶詰=生產額一萬五千四百四十四圓 輸入四千七百八十五圓 輸出五萬一千三十六圓

畜產品

▲콘덴스드밀크=輸入八百二十五圓 移入四十萬四千九百九十圓

▲뻐터及뻐—큰=生產額五萬五千三百四十九圓 輸出一百八十六圓

▲人造빠터=生產額四千七百三十四圓 輸入五千四百三十七圓 輸出一百九十圓(輸出은天然빠터 二千七百四圓을包含)

▲其他=生產額三萬三百三十圓

▲計=生產額九萬二百十三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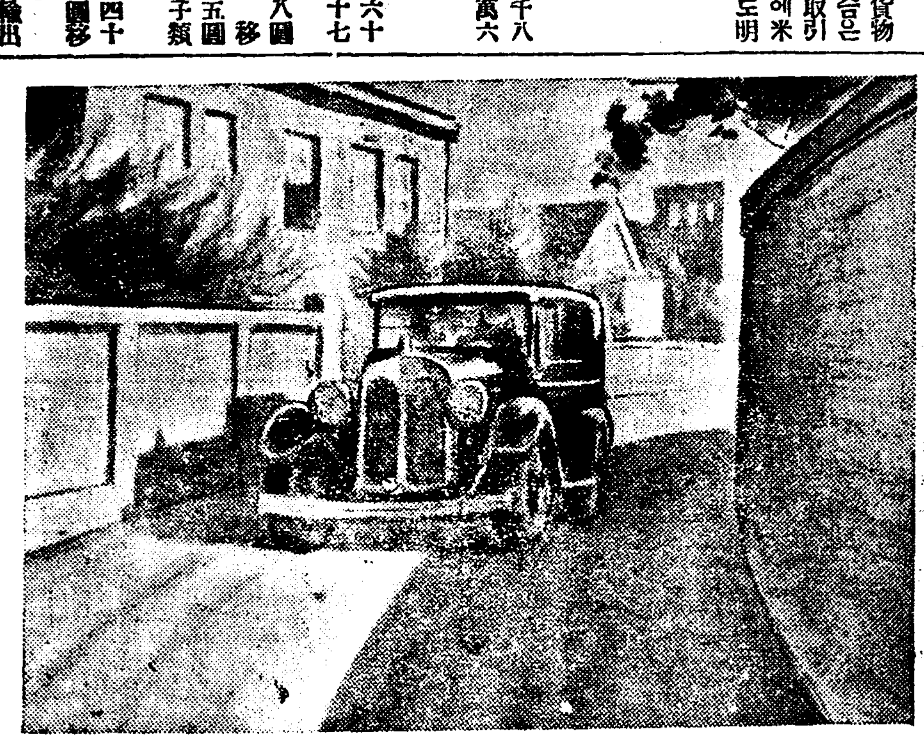
懸賞當選小說 暴風雨지난後 (八十八)

李巴村 作 熊超 畵

出家…(三)

이튿날아침, 정순은 가기실타는봉이를 억지로 남편의뒤를딸어가게햇다.

상수는 정순의 속도몰으고 정순이와 맛장구를치면서 봉이더러 병원에가서 놀자고햇다.



정순은 남편과 아들의뒷모양을 마지막으로보앗다. 눈이아득하고 가슴이터지는것갓햇다

봉이가 대문간에서 돌아서면서

「엄마 어듸 혼자가지말어」

하고말할때 자기의마음을 봉이가 되려다보는것갓해서 가슴이 선뜻햇다

정순은 대충대충 짐을싸고 상수의 저금해두엇든돈 팔백원을차저서 려비를차렷다

편지 두장을 한장은남편에게 또한장은 봉이에게썻다 봉이는 글을알리가업지만 쓰고시펏다

「사랑하는 H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이여하고 불으는것도 이것이 마지막이외다

나는 지난 삼년동안 당신의사랑을 너무도크게바덧나이다. 물론 그만큼 저도 당신을 사랑하엿나이다.

생각하면 이가슴이 떨려고 눈물이나나이다. 가슴이 미여지고 창자가 끈허지나이다.

아아 나는 이몃번이나 헤바나지말려고 맹세하엿든가

다. 그러나 H여 인생은 단순한것이 아니드군요 더구나 젊은이란 복잡하기 거미줄갓드군요 이복잡한 인생의 길을 가정이란 단순한 제도우에 올려노코 운전해보려든 저는 얼마나 어리석은녀자엿든가요 지혜롭지못한녀자엿든가요

H여 놀래지마시오 저는당신을버렷나이다. 이것이 나의반생을통하야서 가장쓰라린 상처가 될것입니다. 아들 봉이를 처보담더 큰상처를 마무하기위하야서 나는집을 떠나나이다. 어디를 가느냐고?

그것은 제발뭇지마러주시오 H여 저는이글을 쓰면서얼마나우는지 몰읍니다. 젊음이란 이처럼 맹랑한것인가하매 하날로부터바든 이목숨을저주하나이다.

내혼이 불타서 다음에오는 젊은이에게 비극이업시한다면 나는 용감하게 제단에오르겟나이다.

바아 천지가 캄캄하여집니다. 저항훈을 나는엇더케넘어가나.

H여 당신이 좀더 내 사랑밧기에 완전한사나히엿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스럽게살어갓슬까? 당신이 좀더 건강하고 이지적이고 풍자적이고 차면서도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라면 나는얼마나 만족하엿슬까

당신은 말하리다, 정순은 천하에 용납지못할 추한 계집이라고, 그러나 H여 러문업는 가정이란 껍질아래에서 누가 젊은생명을 울면서지내릿까, 그것은 당신이 본안해를버리고 저를사랑하든 시절로다시 올라가서 생각하시면 알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이나 오늘의정순이나 마찬가지 마음이외다.

그러라고 당신은 내가 엇던 사랑을차저서 떠나는줄로는 알지말으시오, 저는벌서 이런 사랑에서 뛰여넘은 녀자외다. 물론 제가당신압헤서 나는시간부터 엇던한사나히든지 더 사랑치안을것은 사실이외다.

저는 이 막막한 벌판으로 외로운노래를부르면서 떠돌아단이렴니다, 세상의 모든사람들을 저버리고 다만홀로 치마폭을뒤집어쓰고 헤매여단이렴니다. 그러다가내 종 미처서죽던지 병들어서죽던지 죽는날을 기다릴뿐이외다. 아아 당신은 저벌판 저바람에흔들리는 의갈나무밋헤서 바랑의 슬픈노래를부르다가 잠자버리는정순의 옛사랑을 찾지마소서 자 그러면 이만』

상수에게써노흔편지는 이처럼 참말반 거짓말반의편지다 그다음 봉이에게는

『봉아, 너를 봉천서나헛다하야 봉이라일홈지은 어미가 죄인이다 어미는간다 어미는어듸로가나? 너는 자라서 부듸 큰사람이되라 그래서 네어미와가튼 불상한 녀자를 구해주어라 부듸병업시커라 네아버지는 내가업서도 잘 키워주겟지…봉아 너는죽는날까지 어미를찾지말아 이만쓴다』

편지를 다써서 책상우에노코 정순은 자동차를불러라고 정거장으로나갓다

보ー도와인
赤玉ポートワイン
補血 強壯 葡萄酒

柏村博士創製
泄瀉腹痛
胃腸病第一靈藥
헤루푸
食傷・下痢・消化不良・胃腸加答兒等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六圓

印材
諸印章附屬品一式都賣商
京城府黃金町一丁目
中島印材店
電話本局二四三番 振替京城一五一三五番

耳鼻咽喉科專門
沈相天醫院 (入院設備)
京城樂園洞一三七
(교동오거리) 電話光化門一四九六

「아여보 아지노모도 사는것을 이젓소그려」
「안돼요、그것은 꼭! 사가지고 가야돼요 아지노모도를 안치면 음식맛이 잇서야지」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4-8

523